

앙증맞은 외모 속 야생본능 ‘반전 매력’

펫 휴머니제이션 열풍...이색 반려동물

〈4〉미어캣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 킹’의 티몬으로 친숙한 미어캣은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이색 반려동물로 찾는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반려동물 업계 등에 따르면 미어캣은 남부 아프리카의 건조한 평원과 초원 등에 서식하는 몽구스과 동물로, 몸길이 25~35cm 안팎에 몸무게는 1kg 미만으로 작은 편이다.

눈 주변을 둘러싼 검은 무늬와 땅을 파는 데 적합한 긴 발톱이 특징이며 야생에서는 곤충과 작은 파충류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미어캣은 두 발로 깨끗이 일어서 주변을 살피는 이른바 ‘보조 자세’ 때문에 ‘사막의 파수꾼’으로도 불린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미어캣은 야생에서 일부 개체가 높은 곳에 올라 포식자의 접근을 감시하는데, 가정에서도 낮선 소리가 들리거나 주변에 관심이 생기면 뒷다리로 몸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변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햇볕을 즐기는 것도 미어캣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아침이면 굴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며 체온을 높이는 야생의 습성이 남아 있어 반려 환경에서도 햇볕이 드는 곳을 찾아 몸을 데우거나 자리를 잡고 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두 발로 주변 살피는 ‘보조 자세’ 특징

사회성 높아 사람 잘 따르고 호기심 많아

영역 표시 습성에 배변·냄새 관리 필수



무리생활에 익숙한 만큼 사회성이 높아 사람과 교감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사람 손에서 자란 개체는 보호자를 따라다니거나 몸을 기대는 등 친밀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아 새로운 물건을 발견하면 냄새를 맡거나 앞발로 건드리며 주변을 탐색한다.

하지만 앙증맞은 외모와 달리 야생에서 이어진 본능도 뚜렷하다.

미어캣은 본래 땅속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동물인 만큼 가정에서도 바닥이나 이불, 소파 등을



미어캣이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이색 반려동물을 찾는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김정근 로던트클럽 광주 대표가 기르고 있는 미어캣의 모습. /이연상 기자

을 긁거나 파헤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량도 많아 충분히 움직이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보호 아래에서는 10년 안팎을 사는 만큼 장기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지도 입양 전 따져봐야 한다.

특히 따뜻한 지역에 서식하는 특성상 국내에서는 계절에 따른 온도 조절과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사육공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영역 표시 습성으로 배변 훈련이 쉽지 않은 개체도 있어 냄새와 청결 관리에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정근 로던트클럽 광주 대표는 “미어캣은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라 교감하는 재미가 있고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아 함께 놀아주는 재미도 크다”며 “두 발로 서서 주변을 살피는 특유의 모습도 미어캣만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냄새가 강한 편이라 꾸준한 청소가 필요하고 활동량과 호기심이 많아 물건을 어지럽힐 수도 있다”며 “온도 관리와 적절한 사육장도 필요한 만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감을 갖고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연상 기자

“日 22만원씩 추가 부담” 북구 급경사지 사업 공방

기대서 의원, 현안질문서 문제 제기

“보고 없이 계약 후 예산 편성” 지적

북구 “재해 예방 적법한 집행” 반박



한지역으로 지정된 뒤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소유 법인과 지장물 손실보상 및 토지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

기 의원은 토지임대료 6천만원 외에도 지난 7월 22일부터 준공 때까지 하루 22만8천706원의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10월이던 준공 시점이 12월로 늦춰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내용이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예산 심의를 요구한 점도 지적했다.

기 의원은 “낙석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데 이어 의회 보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금까지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북구는 공사 지연이 건축주의 비협조 때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명!태리기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AOC 명태리기대회’ 참가자들이 잔디밭에 앉아 아무런 말이나 행동 없이 허공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비빔알상과 스마트폰에서 잠시 벗어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며 이색적인 ‘쉼의 경쟁’을 펼쳤다. /김예리 기자

긴급 북구를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했지만 건축주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다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루 22만여원의 추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상 별도 부담이 아니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확정 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에는 건축물 철거 이후 긴급한 재해 예방 공사가 필요

했고, 법령상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이어서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업 추진 내용을 의회에 충분히 사전 공유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해지와 공사 지연은 건축주의 비협조와 법적 분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정비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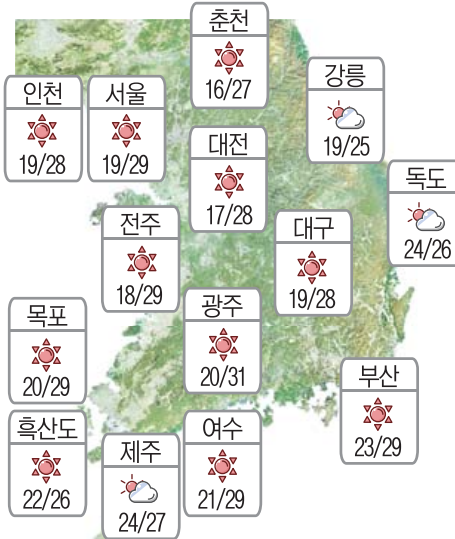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9 해질 18:52 🌙달돋이 01:18 달질 16:28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20/31	장성	맑음	18/29
목포	맑음	20/29	보성	맑음	19/30
여수	맑음	21/29	함평	맑음	19/29
나주	맑음	19/30	순천	맑음	19/30
완도	맑음	21/31	영광	맑음	18/28
구례	맑음	17/30	진도	맑음	20/29
강진	맑음	19/31	흑산도	맑음	22/26
해남	맑음	19/31	고흥	맑음	20/30
광양	맑음	21/29	담양	맑음	18/30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0
남해 앞바다(북)	1.0-2.0	1.0-2.0
남해 앞바다(남)	1.0-2.0	1.0-2.0
남해 앞바다(동)	0.5-2.0	0.5-2.0
남해 앞바다(서)	1.5-4.0	1.5-4.0
남해 앞바다(서)	1.5-3.0	1.5-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10:13	04:17	06:00	00:23	06:36	01:22
	23:34	16:03	18:50	11:55	19:37	12:48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80

세 차 8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40

야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하

●주간 날씨

8일(화)	9일(수)	10일(목)
☀(19/30) 맑음	☀(20/30) 맑음	☀(19/29) 맑음
11일(금)	12일(토)	13일(일)
☀(19/29) 맑음	☀(20/29) 맑음	☁(20/30) 구름조금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2026 캐논 여름 프로모션

여름의 완성,
캐논으로부터

추억하고 싶은 모든 순간, 결국 사진 결국 캐논

올여름, 단 한 번의 구매 찬스!

인생샷은 캐논으로, 사은품은 역대급으로!

삼성·국민·하나카드
12개월 1무이자

구매기간 2026년 7월 1일(수) ~ 8월 31일(월)

정품등록 및 응모기간 2026년 7월 1일(수) ~ 9월 7일(월)

캐논스토어 본점 | 062) 522-2000
지점 | 062) 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문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

광주광역시 지정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관 포 개 발

(주)한양주택관리

당사는 대표자의 오랜 주택관리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빌딩·오피스텔·주상복합·원룸등 모든 건물의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수납·연체자관리·청소·경비·승강기·소방·물탱크
청소·소독 등의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범석
(주택관리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 062.262.1945

사업내용

건물관리업
빌딩·공동주택·오피스텔·원룸

청소용역업

경비용역업

승강기관리업

방역소독·물탱크청소업